

익산시, 축산환경개선 혼신

지난해 이어 올 40억원 들여 축산 악취 저감 행정력 집중 무인악취자동포집기 설치 등 3중 감시체계로 관리 강화

익산시는 하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그동안 중점 추진해 온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도내에서 3번째로 축산업 규모가 큰 익산시는 축산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을 축산악취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축산 악취저감 7개 분야 사업에 40 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악취 저감 추진에 혼신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축산 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은 물론 악취저감사업에 동참한 축산 농가는 생산성도 높아져 일석 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올해에도 4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축산악취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내부관리 및 분뇨처리시설관리와 함께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로 이어지는 3 단계 축산악취관리를 추진 중이다.

먼저 축산 농가 277 개소에 총사업비 6 억원 규모의 축산 악취저감제 100 톤을 지원해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악취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했다.

또한 36 개 농가의 축사 내·외부 및 분뇨처리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완료한 20 개 농가에 대해서는 실시간 축사 내부 악취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 축산환경 관리시스템 사업을 지원해 농가 자체적으로 환경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아울러 축산악취저감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대규모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에도 힘쓴다. 축협 경축지원화센터, 삼지원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공동지원화시설(우주원)에 조차 환경 개선을 완료해 북부권의 축산 악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 악취 단속 등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농가는 악취포집 단속을 실시해 악취신고대 상시설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시설 개선명령을 내려 악취 발생원인을 차단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39 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포집 검사를 실시 해, 기준 초과된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는 악취 집단민원을 비롯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는 24 시간 무인악취자동포집기를 3 개소에 설치하고, 악취 확산 파악을 위한 악취지도제작, 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축산악취상시감시기반 순회감시 등 3 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하절기 대비 악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축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축산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대상 김영규
산업대상 전병곤
사회봉사대상 송헌섭
효행대상 손민자
농업대상 김근섭
교육대상 송태규



김영규 전병곤 송헌섭



손민자 김근섭 송태규

익산시가 3일 시청 상화실에서 익산시민대상 시상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부문 6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민대상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헌신·봉 사한 최고의 시민을 찾아 수여하는 상으로 작년까지 '시민의 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익산시민대상은 부문별로 ▲문화체육대상 김영규(72), ▲산업대상 전병곤(67), ▲사회봉사대상 송헌섭(64), ▲효행대상 손민자(54), ▲농업대상 김근섭(71), ▲교육대상 송태규(59) 등 6인이다.

김영규 문화체육대상 수상자는 한국예총익산지회장 익산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창작활동 등 문화 예술발전 기여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전병곤 산업대상 수상자는 (주)덕산 대표이사로서 41년여 동안 지역 아스콘 산업을 이끌어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익산=정양원 기자

한 공로를, 송헌섭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는 송헌섭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 30여년간 보육원에 의료자원을 비롯한 각종 후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365일 비상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손민자 효행대상 수상자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고령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효를 실천한 점, 김근섭 농업대상 수상자는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한 것으로 송태규 교육대상 수상자는 원광중학교 교장으로 학교문화 개선 및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각각 평가 받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예비창업자 우수아이템 군산시, 초기사업비 지원

군산시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아이템 선정회를 개최하며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월 28일 기술·제조업 분야 창업과정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아이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6개의 우수아이템을 선정,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고 사업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픈형 창업교육 및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마케팅·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총 50시간 운영됐으며, 90%이상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우수아이템 선정 기회를 부여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바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규)는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제226회 정례회 기간(5.20~6.11)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현장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3일 왕궁면 탐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탐라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왕궁리 유적지가 함께 어우러져 유적지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금마면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지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합리면 장점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 전담을 점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신제품 '심리향'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 성료

지역농협과 상생협력 전북 대표 브랜드 육성전략

군산시가 신제품 벼인 '심리향'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며 군산 쌀 소비시장에 변화를 주도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3일 옥구를 오후 1시 일원에서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제품 '심리향'을 홍보하는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신동진쌀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품종으로 향기나는 쌀 "심리향"을 특화시켜 군산쌀의 경쟁력을 갖추고 치열한 쌀 소비시장에 밝았으로 승부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 선보인 벼 품종 심리향은 고품질인 호 품종과 도화향 2호를 인공교배해 개발한 중만생 품종으로 재배하는 논에서도 구수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발된 심리향은 향미계열 쌀로 일반쌀과 달리 2-AP함량(향관련 성분)이 많아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나고 밥맛은 부드럽고 찰기가 좋아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하다. 시는 금년에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

성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최고품질 품종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옥구, 옥서, 대야지역에 심리향 재배면적을 128ha 확대 조성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심리향쌀의 최고품질 유지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5농가에 신동진벼와 차별화된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3일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제품 '심리향'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익산시 민생경제 회복 올인

67개 사업, 1600억원 투입 맞춤형 경제정책 속도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최대 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섰다.

특히 각 분야별 맞춤형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67개 사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제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37개, 311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업체 70곳이 선정돼 124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차보전금 지원실적도 234개 업체,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역 기업 17곳에 수출·보증 보험료 2,800여만원이 투입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등도 인하했다. 김면 대상은 보석박물관과 주얼갤러리 입점 업체를 포함해 총 190여곳이며 감면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